

전일동향

전일대비 1.90원 하락한 1,437.6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90원 하락한 1,437.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50원 하락한 1,435.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1,43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에 환율의 하락세는 제한됐다. 이후 환율은 1,430원 중반대로 반등하며, 1,437.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2.3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5.00	1439.10	1430.00	1437.60	1434.30
엔화	925.53	925.98	915.13	918.29	-	
유로화	1499.87	1502.12	1489.59	1496.8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	-4.47	-11.87
결제환율(수입)	-0.22	-3.55	-10.08	-24.2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분위기에...1,43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37.60) 대비 1.15원 하락한 1,434.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주요국을 대상으로 관세 압박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속도 조절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에 미국 2년물은 2.60bp, 10년물은 3.80bp 상승해 각각 4.302%, 4.616%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트럼프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후 AI 관련 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0.30%, S&P +0.61%, 나스닥 +1.28% 마감했다. 한편 엔화는 이번달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1월 금정위 경계감에 약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의 위험선호 분위기에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이어지는 점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 유입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발언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0.20 ~ 1439.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500.0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5원 ↓
	■ 美 다우지수 : 44156.73, +130.92p(+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8.0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0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